

자동차산업

현대차 미국 점유율 개선, 신차효과는 아직

자동차/부품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02. 6098-6690
Joonsung.kim@meritz.co.kr

9월 미국 판매 142만대 (-5.6% YoY), SAAR 1,744만대 (-5.9% YoY)

9월 미국 자동차 총 판매는 142만대로 영업일수 감소 (25일, -4.0% YoY)와 전년동월 허리케인 피해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 기저효과로 전년동월 대비 -5.6% 감소했다. SAAR는 1,744만대 수준으로 추정 (Autodata)되며, 7월 이후 3개월 만에 1,700만대를 넘어서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.

산업평균 인센티브는 \$3,785로 전년동월 대비 -2.6% 감소했으며,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소비 부담 증가에도 소비심리지수, 실업률 등 판매동행 지표의 개선과 Light Truck 수요개선 (+2% YoY)이 지속되며 실질구매가격 (Transaction Price)는 \$32,003로 전년동월 대비 +1.5% 증가했다.

현대차 5.7만대 (+0.6% YoY), 판매점유율 4.0% (+0.3%p YoY)

투싼 (19개월 연속 판매증가)/코나 등 SUV 판매호조 (+17% YoY) 지속과 아반떼 (+38.3% YoY)의 5개월 연속 판매증가에 힘입어 9월 판매점유율은 전년동월 대비 +0.3%p 개선됐다. 코나 신차효과가 본격화된 지난 5월 이후 5개월 중 4개월 동안 점유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.

싼타페 판매는 10,162대로 전년동월 대비 -11.0% 감소했다.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차의 판매는 7월 1,461대, 8월 6,031대, 9월 5,400대로 아직 ramp-up이 진행 중이다. 9월부터 미디어 광고가 시작됐고, 소매딜러 채고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싼타페 출시효과 (판매증가 + 인센티브 감소)는 10월 이후로 예상된다. 참고로 신형 싼타페는 IIHS로부터 Top Safety Pick+ (최고 안전등급)을 인증 받았고, Ward로부터 18년 Top10 UX (User Experience) List에 선정됐다.


기아차 5.2만대 (-1.8% YoY), 판매점유율 3.6% (+0.2%p YoY)

영업일수와 허리케인 교체수요에 따른 전년동월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, 18년 F/L 모델이 출시된 K5 (10,976대, +10.0% YoY), 쏘렌토 (8,955대, +6.7% YoY)의 판매증가로 점유율 개선 (+0.2%p YoY)을 기록했다. 11월 E-seg SUV 텔루라이드 출시 이후 추가적인 소매판매 개선 실현이 가능할 전망이다.

주요 경쟁업체 YoY 판매성장률, 대부분의 업체들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

Toyota -10.4%, Honda -7.0%, Nissan -12.2%, GM -16%, Ford -11.3%, FCA +14.7%, BMW +0.2%, Mercedes -5.0%, VW -2.6%


그림1 구형 싼타페 현재 지급 중인 대당 인센티브 \$3,750



2018 Hyundai Santa Fe Sport 2.0L Turbo Ultimate SUV	
MSRP:	\$37,215
Incentive:	-\$3,750
Price:	\$33,465
Est. Finance:	\$465/mo*
Est. Lease:	\$425/mo**

자료: 현대차,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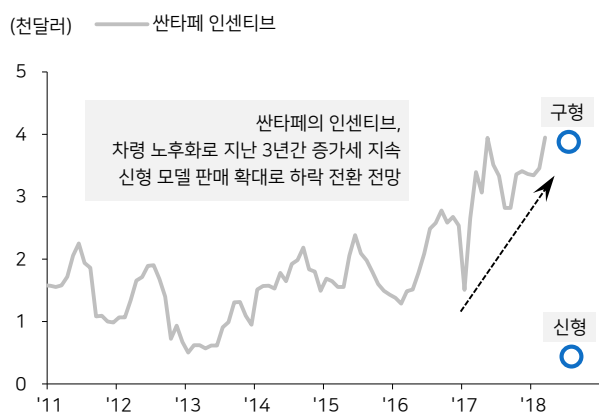
그림2 신형 싼타페 현재 지급 중인 대당 인센티브 \$500



2019 Hyundai Santa Fe Ultimate 2.0T SUV	
MSRP:	\$38,420
Incentive:	-\$500
Price:	\$37,920
Est. Finance:	\$524/mo*
Est. Lease:	\$485/mo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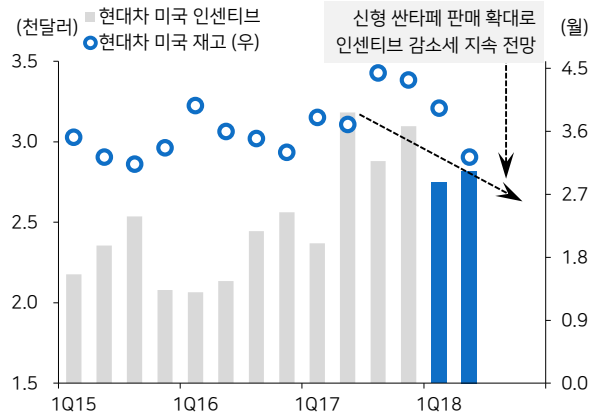
자료: 현대차,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신형 판매확대로 싼타페 인센티브 하락 전환 전망



자료: 현대차,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이에 따라 현대차 미국 평균 인센티브 감소세 지속 전망



자료: 현대차,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0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8년 10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0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준성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